

## 원자력계 산·학·연의 구심점으로

### 한국원자력학회

**올** 해는 에너지원 확보 전쟁, 고유가, 온실 가스 감축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되는 한해가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미국, 중국, 인도 등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시장에 대한 각축전과 신형 원전 노형에 대한 경쟁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들은 이러한 시대 조류를 예측하여 향후 원자력산업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작년에는 미국의 GNEP, IAEA의 MNA, 러시아의 국제 핵주기 센터 등이 제안되었고, 금년에는 IAEA에서 핵연료 공급 보장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국제 에너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선진 각국은 한동안 간과했던 원자력의 장점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국내적으로는 고리 1호기 계속 운전, 방폐장 건설, 사용후핵연료

공문화 그리고 아직은 물속에 잠겨 있는 GNEP 대응 등 2007년은 원자력계가 풀어야 하고, 풀어나갈 해법을 내놓아야 할 과제들이 많다.

우리 원자력학회는 올해에도 항상 새로운 희망을 가슴에 품고 더 나은 미래를 창출해 간다는 각오로 새해를 맞이하고자 한다.

국민들이 원자력과 원자력 과학 기술자를 믿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학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찾아서 할 것이다.

주요 사업으로 간행물 발간 사업, 시상 사업, 장학 사업, NET SCI 등재 사업, 원자력기술 정책 개발 사업, 산·학·연 간 다양한 협력 Network 구축, 대내외 교류 및 협력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간행물 발간 사업으로는 격월간 학회지 발간, 학회 소식지 「뉴토피아」 발간, 연차보고서, 회원 명부를 발간할 계획이다.

해당 학술 부문에서 탁월한 논문을 발표하였거나, 원자력 기술 발전

에 현저한 업적을 이룬 회원을 선정하여 총회시에 상패와 부상을 지급하는 학술상, 춘·추계 학술발표회 시 발표된 논문 중 우수한 논문 3편을 선정하여 차기 학술 발표시에 상장을 수여하는 학술 발표 우수 논문상도 계속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원자력 분야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각 대학의 원자력과 학생 중 선발된 자에 대하여 매년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올해에도 6개 대학에 총 18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현재 학회에서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학회지의 SCI 등재 사업도 2008년을 목표로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학회지의 SCI 등재를 위하여 학회지 논문 투고 및 심사 전산화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연구부회 활성화를 통한 학술 활동의 질적 양적 제고 등을 계속해서 추구할 것이며 학회 부설 원자력기술정책연구소의 기능을 강화하여



한국원자력학회는 다양한 학술 진흥 사업, 산·학·연과의 원자력 협력 증진 사업, 원자력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 사업 등을 활발히 추진하여 국내 원자력 학술 및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2천 5백여 명이 넘는 회원들이 국내 원자력계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원자력 정책 개발 연구를 활성화하게 된다.

동남아 국가 원자력 학회 전문가 워크숍 개최 등 국제 원자력 기술 교류와 협력 활성화, 산·학·연 간 다양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며 학회 청년지부 활동, 타원자력 관련 학회와 연계 협력 등 학회 차원의 다양한 국내외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우리나라 원자력계의 위상을 높이고 원자력 산업계의 해외 진출을 크게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 원자력학회는 금년으로 창립 38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그동안 우리 학회는 다양한 학술 진흥 사업, 산·학·연과의 원자력 협력 증진 사업, 원자력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 사업 등을 활발히 추진하여

국내 원자력 학술 및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2천 5백여 명이 넘는 회원들이 국내 원자력계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 한 해에도 우리 학회는 꾸준한 각종 사업 활동을 통하여 학계, 연구계, 산업계를 아울러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유도하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회관 건물을 대전시 유성구 장대동에 확보함으로써 학회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협정을 체결한 지 50년이 되는 각별한 해다. 세계적으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 맞추어, 올해에도 우리 원자력학회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기술 강국으로 위상을

높이기 위해 배전의 노력으로 학계와 연구계와 산업계를 연결하는 각종 사업 활동을 충실히 수행하여, 국내 원자력계가 일심동체가 되어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할 것이다.

금년도 주요 행사로 원자력에 관한 학술 및 발전과 산·학·연 협력을 증진의 장인 춘계학술발표회가 5월 초 제주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발표회는 10월 말 경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2006년도에 처음으로 12개 원자력 관련 학회 및 관련 단체가 연합회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개최한 바 있는 「원자력 산·학·연 심포지엄」이 금년에 두 번째로 무주에서 8월 하순경 ‘방사선 이용’을 주제로 하여 열리게 된다. 